

경남대, 도시재생 지역 밀착형 산학협력 활성화 추진 LINC+사업 선정돼 200억원 확보...지역사회 발전에 공헌



경남대학교(총장 박재규)는 지난해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에 선정돼 5년간 약 200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는다. 경남대 LINC+사업단은 지역사회와의 산학협력 선순환 구조를 통한 지역밀착형 대학의 구현을 목표로 지원 예산을 사용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단은 우선 장기적인 산학협력 추진을 위해 '산학협력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했다. ▲ 산학협력 교육 ▲ 지역사회(기업)지원 ▲ 지역사회(기업) 연구 및 성과 ▲ 산학협력 지원체제 등 4대 분야 13개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이 사업에는 6개 단과대학 34개 학과와 1천500여 개사의 가족기업,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지역사회 연계교과목 발대식



hello 골목 여행

이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창의적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LINC+사업단의 경쟁력은 지역사회와 밀접한 산학협력 활동에 있다. 경남대는 2014년부터 LINC+사업에 참여하면서 마산시의 원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노력해 왔다. '도시재생·힐링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원도심에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캡스톤디자인, 현장실습, 비교과과정 등에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했다. 사범대학 7개 학과는 마산 원도심의 명물인 골목 여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hello 골목 여행'이라는 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했다. 특히 지역 중학생과 함께하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은 2017년 자유학기제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경남대는 매년 가을에 마산 원도심에서 거리문화 축제와 도시 힐링 성과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들이 수행한 캡스톤디자인과 지역사회 연계 교과목의 결과들을 발표한다. 우수한 성과는 시상과 함께 지역행정정책에 반영된다. 경남대는 산학협력과 관련해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창업교육 및 창업문화 활성화 부문'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교육부 2017년 창업교육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2017년 전국 캡스톤경진대회에서 대상인 교육부 장관상을,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연이어 수상했다. 경남대 관계자는 "이런 성과는 창의교육상상실, 3D 프린터 지원 센터, Make DIY 센터, 미디어 DIY 센터 등 학생들의 창의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시설과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강재관 LINC+사업단 단장(기계공학부 교수)은 "그동안 경남대가 지역밀착형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가 좋은 성과로 이어져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학생들이 자신들의 끼와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